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달동네 빈곤의 재현에 관한 연구*

김주영**

이 연구는 청주 수암골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재현 양상을 분석한다. 빈곤을 재현하는 행위자로 문화예술사업 기획자, 예술가 그리고 수암골 주민을 살펴봄으로써 이 세 주체가 어떻게 빈곤을 재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빈곤의 재현 양상은 골목길, 농촌적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견(異見), 빈곤에 대한 오인과 선택적인 인식, 이를 통해 나타나는 빈곤에 대한 의도치 않은 비가시화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낭만과 현실이라는 기획자, 예술가, 주민 사이의 빈곤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문화예술사업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 주체 간의 동상이몽 역시 지속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문화예술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자, 예술가, 주민 사이의 빈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재현이 현실로서 빈곤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오늘날 철거와 재개발의 악몽에서 벗어난 달동네가 보존형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박제화, 상품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개념>: 달동네, 도시빈곤지역, 빈곤의 재현, 문화예술사업, 수암골

* 이 연구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액연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음(2014. 9-2015. 2). 본문의 내용은 2015년 1월 15일 전북대와 안동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BK21+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인 “From Poverty Area to Art Village?: A Study on Constructed and Contested Meaning of Poverty in Shantytown”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1. ‘아름다운’ 달동네, ‘미덕’이 되는 빈곤?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과 삶의 곤궁함으로 도시빈곤의 상징적인 지역이었던 달동네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다소 독특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달동네의 불규칙한 건축 구조, 빈약한 재료와 기법을 빌려온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상상력의 원천”(신정훈 2014: 172)으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과거의 시간을 간직한 따스하고 아름다운 달동네”(심승희 2004: 230), “골목길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 문화이자 문화재”(임석재 2006: 10)라는 표현 역시 도시빈곤지역에 대한 특정 의미부여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도시빈민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가짐보다는 쓰임, 더함보다는 나눔,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파된 “빈자의 미학”(승효상 1999: 65)은 시대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달동네 골목길이 미화되면서 단순한 통행길이 아니라 주민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으로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승효상 2012: 222). 가난을 방조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작가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미, 자기희생에서 삶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윤일성 2006: 182) 도시빈민은 ‘소박’하여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한 생활방식을 가진 존재로 의미화되었다.

달동네에 대한 미학적 의미부여, 도시빈민의 빈곤한 삶에 대한 미화는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상실되어 상상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골목길이 집, 고향과 동일시되면서 일종의 노스탤지어(nostalgia)로 소비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김홍중 2008).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스스로를 낭만주의자, 감상주의자로 칭하는 자성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임석재 2006: 17), 이는 잠시 드러날 뿐이며 골목길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함과는 별개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감상되고 있다. 1990년대 미디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하층계급으로 전락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서민의 공간으로 달동네를 재현한 것(고선희 2011: 20)과 미학적 의미부여, 빈곤한 삶에 대한 찬미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전후로 달동네가 일방적인 응시와 탐미의 대상이 되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구체적인 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달동네 활성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즉 문화예술사업은¹⁾ 주로 벽화 그리기, 공예품 제작 및 판매, 풍물패 운영 등과 같이 예술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달동네를 단지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사업의 접근이 달동네를 미학적으로 표상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달동네의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낙후된 물리적 환경과 주민의 빈곤한 삶에 대한 특정 재현(representation)이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의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재현 방식과 과정이 달동네 외부의 일방적인 시선인지, 외부의 시선과 주민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지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달동네 빈곤에 대한 재현이 기획자, 예술가 그리고 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청주시의 수암골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암골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 기획자와 예술가는 ‘아름다운 달동네’라는

1)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특정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칭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의 예술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낙후지역 활성화에 주로 벽화 그리기, 공예 제품 제작과 같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 역시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자적 관점을 견지하는 기획자와 예술가의 ‘낭만으로서 빈곤’의 재현에 대한 내부자적 입장을 대변하는 ‘현실적인’ 관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을 둘러싼 낭만과 현실이라는 기획자, 예술가, 주민 사이의 인식의 간극이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문화 예술사업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 주체 간의 동상이몽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세 주체가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수암골의 빈곤을 재현하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달동네 활성화 전략의 현주소를 검토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과정 및 대상

연구자는 수암골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주 3~4일 정도 수암골을 방문하였으며, 면담은 주로 경로당과 마을 입구에 위치한 주민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진행하였다. 이때금 주민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극히 드물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의 한계로 경로당과 가게 같은 공적공간에서 주로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수암골에는 2008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벽화가 그려졌다. 이후 2010년 수암골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성공으로 이곳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으면서 청주시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드라마 촬영으로 수암골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정부 및 기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고 있었던 기획자,

예술가는 급속한 관광지화를 막을 수 없었다. 2010년 종영한 <제빵왕 김탁구>의 영향으로 수암골에는 2011년 5만 7096명, 2012년 5만 4337명, 2013년 7만 56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²⁾ 미루어 보아 관광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수암골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점철된 실패에 가까웠던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 때문이다.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벽화가 그려진 아름다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서 수암골이 아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수암골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우선적인 고민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20평 남짓의 단독주택에 불과하다. 단독주택마저 가지지 못한 주민도 있으며, 다수는 한 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더 이상 노동하지 못하는 노년의 주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자녀에게 받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면접 대상자 명단(기획자, 예술가)

구분	순번	연령	사업기간	소속
기획자	1	50대	2008~현재	-
	2	40대	2010~2012	-
	3	40대	2010~2012	-
예술가	4	50대	2014~현재	-
	5	30대	2014~현재	아트마켓
	6	30대	2014~현재	아트마켓
	7	50대	2014~현재	수암골예술촌
	8	40대	2013~현재	수암골예술촌
	9	40대	미상	-

2) 충북일보, “청주 수암골의 서글픈 두 얼굴”, 2014. 7. 28. 기사.

〈표 2〉 면접 대상자 명단(주민)

구분	순번	연령	성별	고향	거주기간	직업	수입원	부동산
주민	1	80세	여성	충북 단양	40년 이상	무직	기초연금*	토지/집
	2	77세	여성	충북 낭성	40년 이상	무직	기초연금	토지/집
	3	78세	여성	충북 초정	49년	무직	기초연금	-
	4	64세	여성	충북 청주	64년	무직	기초생활수급	토지/집
	5	81세	남성	충북 괴산	41년	무직	기초연금	토지/집
	6	82세	여성	충북 괴산	-	무직	기초연금	-
	7	75세	여성	충북 괴산	41년	자영업	기초연금	토지/집
	8	81세	여성	충북 도완	50년	무직	기초연금	전세
	9	58세	남성	충북 청주	20년	자영업	-	토지/집
	10	58세	남성	충북 괴산	32년	건축업	-	토지/집
	11	68세	여성	충북 문의	20년	화장실 청소	기초연금	토지/집
	12	78세	남성	-	30년	관광안내	기초연금	무허가
	13	60대	여성	-	-	-	-	토지/집

*주민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은 1인당 월 16만 원 내외.

이 연구의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빈곤의 재현 양상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기획자, 예술가 그리고 수암골 주민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정보제공자는 기획자와 예술가 9명, 주민 13명 총 22명으로 이 중에는 인터뷰가 심층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고, 일상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경우도 있다. 세 주체 중 기획자와 예술가가 빈곤에 대한 거의 유사한 인식과 재현을 드러낸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후의 내용 전개에서 큰따옴표(“ ”)로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표기한 부분은 기획자, 예술가,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지만, 주민은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대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노력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된 당일 주민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한글 프로그램에 정리하였다. 빈곤의 재현 양상을 세 주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로 기술하였지만, 지역신문사의 보도기사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디어는 재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다양한 기사, 특히 지역 일간지를 참고하였다.

3. 달동네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2006년 관 주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Art in City)가 진행된 이후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예술, 일상의 예술이 낙후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조형물 설치에 그친 단발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낙후지역의 소외계층 주민이 다른 구성원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었다(이유림 2015: 1-2). 수암골도 벽화가 그려진 200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후지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주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 과정을 보여주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낙후지역 활성화에 있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역할과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수암골과 유사하게 벽화가 그려진 이후 관광명소로 유명해진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통영 동피랑마을의 사례를 모범적·성공적인 것으로 분석한 연구(정아름 2008; 이은영 2011; 조윤미 2011; 정하나 2014)가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들은 지자체, 민간단체, 예술가, 시민 주체로 인해 변화하는 마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이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 구축으로 벽화 그 자체가 주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전개 방식이 기존에 진행된 사업 현황과 효과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선적인 평가는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성공의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지만(송효진 2011; 김유미 2013; 이유림 2015), 달동네가 기반시설 구축이 미비한 관광지라는 지적에 그치고 만다. 관광지화로 인한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외하면 공공기반시설의 부족, 재원의 불안정성, 관광안내체계의 부족, 낮은 접근성 등 주로 관광객의 편의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낙후지역을 관광명소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뒤 발전방향을 논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제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사례로 다루어진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통영의 동피랑마을이 달동네로 조성된 배경에는 도시빈민의 유입이 있었고, 여전히 영세한 주민의 거주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공공미술을 매개로 한 달동네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 지역의 실재와 외부의 다면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변화의 이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표면적인 평가는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와 아기자기한 벽화로 인한 낙후지역 외관의 가시적인 변화에 기인할 뿐이다. 이 때문에 공공미술의 대상이 되는 낙후지역, 즉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달동네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적 배경으로만 간주되는데 그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역시 주로 호의적으로 검토되고 만다.

수암골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계기로 진행된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사업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천착한

다는 점에서 단순히 벽화가 그려진 외관상의 변화 외에 실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벽화로 인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의문에 힘을 실어준다.

도시빈곤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이제 달동네의 특정 변화—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을 접목한 최근의 지역개발 전략과 맞물려 벽화가 그려진 달동네의 변화를 눈여겨 볼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방향의 지역개발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빈곤지역으로 그 관심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도시빈곤지역에 대한 조옥라(2015)의 최근 연구는 서울 백사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기존의 달동네 개발방식(전면 철거-재개발)과 다르게 제기되어 온 재개발 논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간의 인류학적 연구들은 도시빈곤지역 주민의 생활, 철거, 생존 전략과 빈민운동, 빈곤이 대물림되는 구조, 복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가난의 문화(정채성 1989; 조옥라 1990; 조은·조옥라 1992; 조문영 2001; 김효진 2009; 정연우 2010 등 다수)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도시빈곤지역의 전반적인 변천사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의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조문영의 연구는 가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빈민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는 “미학적 시선”에 편승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동조하고 마는 복지 종사자들의 모습과 방송물 제작과정을 통해 빈곤이 재현되는 방식(조문영 2001: 91-105)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빈곤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오늘날 도시빈곤지역을 새롭게 ‘재생’하려는 과정 속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홍콩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삼쉬포(深水埗)에서 가난의 유산이 지켜야할 문화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연구가 하나의 사례이다. 재개발 대상이었던 삼쉬포가 가

난했지만 인정이 많았던 공동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근면성실하게 살았던 홍콩인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재현되면서 문화유산의 거리로 변모한 것이다(장정아 2013: 60-66). 문화유산에 대한 홍콩정부의 중요성 인식과 노스텔지어 담론은 삼쉬포를 다른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개발방식을 생각한다면 매우 독특한 것이다.

달동네가 형성된 제도적, 역사적 맥락과 현재 위치를 고려한다면 이 지역을 둘러싼 최근의 재생방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달동네에 거주했던 도시빈민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저임금 노동력 풀로서 중요시되었다. 정부가 무허가 판자촌을 묵인 내지는 양성화하였던 것도 이 공간을 저임금 노동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기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이소정 2006: 177-178). 최근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자, 예술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재개발에서 벗어난 오늘날의 달동네가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없애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달동네, 그 이면에 어떠한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암골에서 벽화 조성 이후 관광객을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촉진되는 “이미지(표상)의 정치경제학”(신지 1997: 25)으로서 관광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로 빈곤지역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재현은 권력과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되며, 개인의 정체성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Durr 2012: 709)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지점에서 1990년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빈곤 관광(poverty tourism)을 둘러싼 “빈곤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poverty)”(Frenzel 2013: 124)라는 비판을 상기해볼 수 있다. 빈곤 관광은 말 그대로 슬럼(slum), 파벨라(favela: 브라

질의 도시빈민가), 타운십(townshi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거주 지역) 등과 같은 빈곤지역을 관광하는 것을 가리킨다.

빈곤 관광은 지역의 진정성-꾸며진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을 보고 싶어 하고, 단순한 관광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Durr and Jaffe 2012: 115). 이들은 전근대성과 진정성을 동일시하면서 빈곤지역을 근대화된 세계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근대적 정착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례로 타운십은 ‘진정한 흑인’이 재현되는 곳으로 진정성을 획득하면서(Burgold and Rolfes 2013: 165-167) ‘리얼 아프리카(real Africa)’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빈곤지역을 방문하면서 빈민의 공간과 빈민 자체에 대한 재현을 구성하며, 이곳에 대한 특정 내러티브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Durr 2012: 706-707; Jones and Sanyal 2015: 1). 빈곤 관광이 빈곤지역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기획되기 때문에 (Rolfes 2010) 진정성 있는 지역이라는 재현이 관광 상품 기획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고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재현이 반복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상품화”라는 비판은 이러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빈곤 자체가 관광의 목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암골은 드라마 촬영이 우연히 이루어지면서 관광지로 변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자와 예술가는 관광을 수암골 활성화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수암골에서 촉진되는 관광이 빈곤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특정한 재현이 구성·공유되면서 수암골의 낙후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논리가 작동되는 문제가 있다.

기획자와 예술가가 수암골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과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주민 역시 이 재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

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내지 못하기도 하면서 문화예술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재현에 잠식되어 버린다. 특정 장소에 대한 이미지 구성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은폐할 수 있다(이무용 1999: 61). 이는 외부의 개입을 통한 수암골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재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존하는 문제와 갈등의 실재를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수암골의 형성과 변화

1) 수암골의 형성

수암골은 과거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했던 청주시 수동에 작은 규모로 남아 있는 달동네이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약 52세대 96명(남성 55명, 여성 41명)³⁾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인 수암골의 명칭은 2008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달동네의 본격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수암골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정착으로 형성되었다. 허름한 천막을 치고 살던 피난민이 점차 모이기 시작하여 하나의 마을 단위를 이루면서 이 일대는 ‘피난민촌’, ‘평화촌’, ‘수용소 터’로 불리기 시작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수의 피난민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단지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청주시는 목재와 흙벽돌 등의 건축자재를 지원하여 피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김미숙 2014: 27;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74).

3) 이는 청주시 중앙동주민센터 통계자료(2014. 10. 31.)에 근거한 수치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수암골은 정식 행정명이 아니라 중앙동 15통의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수암골만을 대상으로 정리된 통계는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다. 다만 15통 3반이 수암골의 지역적 분포와 유사해 이를 수암골의 대략적인 인구로 간주한다.

이후 수암골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었다. 이들은 사유지에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을 음성적인 매매 및 임대계약으로 취득하였다(송인창 1988). 주택의 신축연도가 50-59년이 가장 많아(김낙준·김태영 2002: 49), 초기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목재, 시멘트 벽돌, 석회 및 흙벽돌 등으로 건축한 주택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재개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청주시와 시민단체, 주민과 건설업체의 의견 차이로(임선영 1997: 74-75) 번번이 재개발이 백지화 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주택 개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계기로 과거 우암산의 미관을 해치는 도시 영세민의 낙후된 주거지였던 피난민촌, 평화촌, 수용소 터에서 드라마의 정감 있는 배경인 수암골로 전혀 다르게 재현되기 시작했다.

2008년 이전에 수암골을 “도심권역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와 미개발지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이만형·임선영 1997: 142),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김낙준·김태영 2002: 47),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곳”(송인창 1988: 21)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다르게 표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인해 가능했다.

2)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수암골의 변화

문화예술사업 초창기에는 “도시 개발과정에서 변화되고 소멸되어가는 골목길 문화를 되살리고, 개발논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원주민들을

문화 속으로 유입”(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125)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주민을 ‘어떤’ 문화 속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인지 그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골목길과 주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예술사업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 예술가의 이러한 관심으로 수암골의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는 표상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알록달록한 벽화의 시각적 효과는 외형적인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벽화가 외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역시 구체화되었다. 주민의 ‘생활문화’ 증진,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2010~2012)을 기획자와 예술가가 주도하면서 주민을 주체로 하는 사업운영모델이 도입된 것이다. 일본 도요타 재단의 <아시아 인인(隣人) 프로그램 The Toyota Foundation Asian Neighbors Program for Fiscal 2010> 공모에 선정된 수암골 지역사회협회의회(2010~2011) 또한 “관광자원화 방식을 이용한 도심달동네의 공동체형 자립기반 확충 모델과 보존형 개발 모델의 제시”⁴⁾를 목적으로 하면서 주민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위치시켰다.

주민은 관광 상품 제작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마을 안에 새롭게 만든 식당 운영에도 참여해야만 했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기존의 낙후지역 재개발과 다른 차별화된 모델 제시를 위해 관광지로서 수암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간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무료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고령의 주민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풍물을 가르쳐 주는 강사가 마을을 찾았고, 공예품 제작을 위해 함께 모여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해졌다.

주민이 짚단으로 만든 바구니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은 마을 입구에

4) <수암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회의회 구성 사업계획서>(2010), 기획자 제공 내부 자료(미간행)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다른 공예품과 함께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주민은 이 공예품이 판매되면 바로 장부에 기록하고, 수입은 마을의 공공기금이 된다. 조용한 마을에 외부인이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수암골 주민이 점점 고령화되어 자연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2013년에 조성된 수암골예술촌은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가 빈집이나 폐가에 입주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김미숙 2014: 32). 이는 기존에 표면적으로라도 주민이 활동주체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들이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제공한다는 방향은 철저히 외부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거주와 작업을 병행하는 술가가 단 한 명에 그치며, 주로 2~3개의 작업장만 이곳에 조성되어 있다.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은 이러한 작업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만다. 주민과 예술가 사이에 특별한 교류가 없고, 예술가 역시 간헐적으로 수암골에 머물면서 오랜 기간 주민이 구축해놓은 마을공동체적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다. 한 예술가는 처음에는 마을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몇몇 주민이 건넨 “사람 사이에 다른 말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수암골에서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주민을 고용해 공방의 활동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말이 생길까봐’ 그만 두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예술가의 활동과 주민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면서 예쁜 공방이 몇 개 생긴 변화에 그치고 말았다.

벽화를 통한 수암골의 외형적인 변화, 이것이 드라마 촬영과 맞물리면서 관광명소로 거듭난 수암골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사업의 방향성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수암골과 성안길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역시 관광종합안내소의 신설,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안내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 이외에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수암골 아트마켓(예술장터)을 포함한다. 이는 지역 예술가를 활용한 관광 상품 만들기라는 기존의 문화예술사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수암골은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꾸며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에 골몰하는 집단에 의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재개발을 주도했던 건축업체는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자와 예술가로,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요구했던 주민은 이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인으로, 우암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재개발을 지지했던 청주시는 새로운 관광지로서 수암골을 활용하는 행정당국으로 등장한다.

표면적으로 관광을 중시하고 있지만, 관광지로 개발하는 명분에는 수암골 주민의 삶 그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가 있다.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기획자와 예술가가 주민의 삶에서 발현되는 수암골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주민이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불평등, 그로 인한 고통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 주민의 빈곤한 삶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되어버리는 것이다(Burgold, Frenzel, and Rolfes 2013: 101). 이러한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암골 빈곤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 문화예술사업과 낭만화되는 빈곤

2008년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예술가는 수암골을 새롭게 구성하는 주역이었다. 이들은 우암산 순환도로와 수암골의 골목길을 연계하여 산책길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우암산 일대에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던 낙후된 주거지가 철거되고 소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서면서 수암골의 골목길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기획자의 우려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자리 잡은 비좁은 수암골의 골목길은 도시 아이들이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화자원으로 의미화되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집과 그 사이의 골목길은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괜찮은 골목길”은 따뜻한 정취를 만드는 건축적 요소가 되고, 이러한 환경이 낯선 도시의 아이들에게 좋은 “산책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암골만의 독특한 풍경은 “문화적 가치”가 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연탄은 “희소성” 있는 자원으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거의 낯선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수암골은 주민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물리적·자연적 풍경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기획자, 예술가가 주민의 삶이 담긴 벽화를 통해 추억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암골을 재현하고, 수암골지역사회협의회가 역사문화관 건립, 피난민·북한음식 판매 등을 수암골 발전계획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거를 새로운 전시의 대상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실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수암골예술촌의 교육 프로그램에 6·25 시절 주거문화체험을 포함시키면서 “6·25 피난민촌인 수암골에는 지붕이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고 옆집과 옆집이 처마를 맞대고 있어 아이들이 신기해할 것”이

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기획자 역시 전시되는 도시빈곤지역으로서 수암골을 드러낸다.⁵⁾ 이러한 재현과 구성 전략에 따라 관광객 역시 한국의 1970~80년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수암골을 인식하게 된다.⁶⁾ “없애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끔 계승한다”는 기획자의 말은 1980년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된 불량주거지역 달동네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잘 보여준다. 한 예술가가 “과거 이 일대가 모두 판자촌이었는데, 그 집들을 없애지 말고 뒀으면 지금의 한옥마을처럼 됐을 거예요.”라고 연구자에게 말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을 드러낸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열망은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 문화유산, 골동품 등에 대한 보존 욕구로 표출된다(로웬델 2006: 17-18). 기획자, 예술가가 수암골의 외관을 보존하여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자 하는 활동은 문화유산 보호를 떠올리게 한다. 개발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인 달동네의 외관을 보존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정적인 공간으로서 수암골을 의미화하는데 일조한다. 과거의 가난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주민이 역척같이 버텨내야 했던 가난한 세월을 켜켜이 담아낸 오늘날의 수암골은 그 실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자의 면접 대상자인 할머니는 많은 관광객이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집도 만드름 하고, 뽕기 [페인트]라도 칠해야” 벽화를 그릴 만한 벽이 된다고 말하는 할머니는 그나마 수리를 해서 번듯한 몇몇 집에 비하면 자신의 집이 매우 남루하다고 생각한다. “지저분하고 뒤숭숭한” 동네, “집도 딱히 볼 것 없는” 수암골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 사진을 찍는 광경은 할머니에게 너무나도 낯선 일이다. 오히려 할머니는 서울에서 구경했던 63빌딩과 번듯

5) 중부매일, “연계성 없는 6·25 교육…누굴 위한 체험인가”, 2013. 8. 6. 기사

6) 동아일보, “영국의 노팅힐과 청주의 수암골”, 2014. 9. 30. 기사

한 아파트를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더 나은’ 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할머니의 태도는 기획자, 예술가가 의미화하는 골목길, 달동네 문화에 대한 찬미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암골의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수암골의 삶은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없이 사는’ 삶이다.

하지만 달동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고, 비좁은 골목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질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걸어봤던 경험이 없는 기획자, 예술가는 그 실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들이 골목길이 만드는 달동네의 독특한 외관에 매료되는 것은 그 실재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골목길의 풍경은 도시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기획자에게 “모든 사회적 삶의 갈등이 면제된 사적 실존의 공간으로 형상화된 하나의 풍경이자 행복의 상징”(김홍중 2008: 161)이 된다. 반면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골목길, 낙후된 집의 불안정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민은 삶의 어려움이 응집된 공간으로 수암골을 인식한다. 주민에게 과거 수암골로 이사 왔을 때의 첫인상과 이곳에서의 삶의 궤적을 물어보면, “힘들었다”, “말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수암골의 삶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감 속에서 주민이 기획자, 예술가가 주장하는 골목길의 가치, 달동네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개발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주민은 자신이 경험한 열악한 거주환경을 우암산에서 식수를 길어 먹어야 했던 기억, 연탄으로 밥을 지어 먹어야 했던 기억과 연계시킨다. 오늘날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겨울철 주요난방 방식인 연탄을 관리해야 하고, 전기가 종종 나가는 소소한 불편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기획자, 예술가가 이야기하는 향수와 추억은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들[기획자·예술가] 좋자고”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달동네를 보존해야 한다는 기획자, 예술가의 생각은 주민의 고통이 배어 있는 빈곤의 기억을 낭만적인 과거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달동네의 외관을 둘러싼 기획자와 주민 사이의 다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기획자는 주민이 골목길, 달동네 외관을 통해 드러나는 수암골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주민 일부만을 보고 내린 판단에 불과하다. 물론 과거를 이미 지나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추억으로 회상하는 주민도 있다. “골목골목이 그렇게 정겹고 푸근할 수가 없어.”라는 주민은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 크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살았다”면서(충북발전연구원 2010: 42) 과거의 기억을 아름다운 것으로 대상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불편했던 주거환경으로 여겨지는 골목길조차도 기획자, 예술가의 인식과 유사하게 정겹고 푸근한 것으로 의미가 전환된다. 과거의 고통을 제거하고 수암골에서의 생활을 나쁘지 않았던 현실로 의미화하는 과정이 주민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연구자가 만난 주민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문헌상에서만 확인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기획자, 예술가는 수암골을 농촌과 매우 유사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고향의 주민이 유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적 요소를 신기하게 받아들인다. 마을공동체적 요소는 골목길, 달동네의 독특한 외관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마을의 문화적 가치로 전환되면서 수암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주민이 견고한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달동네가 가진 공간적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문만 열면 서로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으로 친밀한 생활이 가능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농촌 생활의 연계성을 바라보는 기획자, 예술가의 시선은 견고한 마을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도시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기획자, 예술가가 도시인 수암골에서 농촌적인 사회연결망을 유지하고 사는 주민의 모습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기획자와 예술가가 인식하는 “도시 같은 느낌이 안 나는” 수암골에 형성되어 있는 “정서적 공동체”는 마을에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참아주는 미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정서적 공동체는 경제적 공동체와 구분되는 것으로, 주민 사이에 정을 나누는 일과 이득을 도모하는 일은 별개로 여겨진다. 수암골이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획자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특정 개인이 이득을 얻는 행위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획자가 정서적 공동체의 증좌로 제시하는 수암골 주민의 밀접한 관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주민은 예전부터 애경사를 중심으로 마을의 일을 함께 꾸려나갔다. 애경사를 통해 돈이 교환되고,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관계가 유지된 것이다.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나누어 먹고, 일하러 간 엄마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어 갔다. 주민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유사친족(fictive kinship)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삶에 필요한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왔다. 하층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유사가족이라는 개념 하에 형성되는 생존 네트워크(Rapp 1987: 231-232)가 수암골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 다수가 청주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이주해 와 마을에서 상부상조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했던 것도 이러한 생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수암골에서는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주민의 관계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것이다.

기획자, 예술가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오랜 시간 이 곳에서 사는 이유가 정서적 유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의 생각은 다르다. 주민도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수암골의 장점으로 생각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주민이 살아보지 못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 된다. 지속적으로 좌절된 재개발은 주민이 마을의 인심과 공동체적 정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농촌마을과 같은 수암골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 달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 아파트는 낙후된 수암골의 집보다 경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돈이 있으면 뭐 하러 꼭대기에 살어.”라는 할머니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6. ‘가난하지 않은’ 달동네라는 오인

기획자, 예술가는 처음부터 개발과정에서 사라지는 골목길과 마을 공동체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현황을 대략적으로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어떤 때는 수암골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면 “나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획자의 시선에서 수암골은 ‘빈곤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진 도시 속 경관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가 삶에 만족하고,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는 모습도 이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간과하게 만든다.

기획자는 주민이 만족스럽게 지내는 이유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

난 현재, 상대적 빈곤을 인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에 빈곤이 상대적 빈곤 인식으로 문제시 되는 추세지만, 수암골 주민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의 생활수준이 모두 비슷하다는 점에서 누구 하나 스스로의 빈곤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제적인 박탈에서 오는 물질적 결여인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감지된다(조성한 2010: 3). 하지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사이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절대적 빈곤은 그 최저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빈곤도 어떠한 수준에서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절대적으로 핵심적인(The absolutist core)” 것으로 정의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상대적인 빈곤도 결국은 일반적인 생활 수준 이하에서 인지된다고 본다(최지훈 1998: 59-65). 이에 따르면 빈곤은 결국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기획자가 인식하는 수암골 주민의 빈곤도 절대적인 차원에서 결여된 어떤 것임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 예술가에게 수암골은 상대적인 빈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달동네일 뿐이다.

수암골 일대에는 과거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해 있었는데, 당시의 무허가 주택은 현재 수암골의 주택보다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수암골을 가리키며 “여기는 별거야,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한 예술가는 달동네의 빈곤 문제를 기획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교하며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과거 무허가 판자촌의 허름했던 주택에 비하면 오늘날 수암골의 주거환경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달동네는 다시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의미화되고, 농촌마을과도 같은 공동체적인 정은 수암골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요인이 된다.

절대적 빈곤이 “허기의 고통과 헤진 옷의 남루함”으로 정의되는 1960~70년대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산업화 이래로 급격하게 성장한 한국 경제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비가시적으로 만들고 있다(신명호 2004: 204-205). 오늘날 삼시세끼를 거르는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빈곤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를 기준으로 빈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자와 예술가가 수암골 주민을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오인 속에서 가능하다.

물론 기획자와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주민의 빈곤이 큰 관심사가 아닌 이유는 주민 스스로가 구성해가는 빈곤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사회구성원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빈곤의 수준”(조성한 2010: 3)이라는 ‘주관적 빈곤’의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의 주관적 빈곤 인식은 기획자, 예술가의 빈곤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과거 달동네의 쟁점이 주거 빈곤이었다면, 오늘날은 주민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9%에 달하고 있다.⁷⁾ 노년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만 가능하게 된다. 수암골 주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다수이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암골 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빈곤은 노인이 빈곤을 인식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점에 기반 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주민과의 일상적 대화를 통해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빈곤에 대한 다소 독특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다수 주민은 과거에

7) KBS뉴스, “[희망창조 코리아] 노인 빈곤율 ‘OECD 1위’…해법은?”, 2015. 1. 16. 기사.

비해서 오늘날 “호강”하고 있다고 여긴다. 현재 노인을 위해 준비된 여러 복지혜택 덕분에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근근한 생활이 가능해, 오로지 자신이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혹독한 과거와 비교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민이 현재 자신의 빈곤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절대적 빈곤기의 경험과 전무했던 복지제도에 대한 기억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힘들게 일해도 푼돈 정도 벌던 과거, 자식들을 굶겨야만 했던 과거의 빈곤에 비하면 오늘날의 빈곤이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지는 않고,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하는 기초연금정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주민의 주관적 빈곤 인식은 기획자, 예술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이 “씩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한 기획자는 “노인분들이 욕심이 없고 특별히 돈 쓸 데가 없다”는 사실에 기반해 특별히 수암골에서의 삶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주민은 “병원에만 자주 안 가면 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먹고 사는 것에 국한시킨다.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 밖의 소비에 대한 욕구를 극도로 억제한다. 고령의 주민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은 병원비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배를 굶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삼시세끼만 간신히 챙기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은 과연 가난하지 않은 것일까?⁸⁾ 자본주의

8) 연구자가 만난 13명의 주민 중 50대 후반인 주민 두 명(마을 리더)을 제외하면, 64~82세 사이에 주민의 연령이 분포되어 있다. 11명 중 8명은 무직이고, 1명은 마을에서 집과 붙어 있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2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와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이중 8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대부분이 20평 남짓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중 1명은 여전히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월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고 할지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비욕구를 가지게 된다. 광고는 이러한 소비욕구를 자극하며 소비자에게 돈을 지출하게끔 만든다. 주민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광고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욕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어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스스로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분수에 맞는 삶으로 표상되는 욕망의 좌절은 주민이 오랜 시간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가게를 최소한으로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할머니는 “그냥 나한테 맞게 하는 거야.”라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없으면 없는가보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원래 없었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할머니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이 욕망을 버리고 부조리함에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60대 주민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만족한다. “욕심 부린다고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해도 안 되는 일은 갈망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한 삶이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달성할 수 없는 욕망을 부질없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삶과 물리적 힘을 다한 육체에 있다. 수암골 주민은 일주일에도 한 군데 이상의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아픈 곳이 많다. 육체의 쇠약함은 주민의 삶에 대한 욕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든다. “젊었으면 한번 해볼 텐데”라는 할머니의 말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기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할머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선 기준은 매우 불합리하게 정해져(신명호 2013: 37-49) 최저생계비 기준 선정에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차원에서 표본으로 살펴본 주민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면 ‘가난하지 않은’ 달동네는 너무나도 낮설게 다가온다.

니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크게 아픈 곳 없이 수암골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바란들 뒤희. 힘들어서 하지도 못해.”라는 자조 섞인 한탄만 할 뿐이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주민의 태도와 고령으로 인해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전략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기획자와 예술가가 주민의 실질적 빈곤을 간과하게 만드는 풍경을 낳는다. 이로 인해 기획자와 예술가는 주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부인의 시선에 불과하며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수암골 주민이 처한 현실로서 빈곤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부실한 담벽을 수암골의 실질적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골목길과 마을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부각시키는 데 몰두한다.

동시에 노인으로 구성된 주민은 복지혜택이나 한국경제의 성장을 거론하며 삶이 나아졌다고 보면서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⁹⁾ 주민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가난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두가 잘 살게 되었는데 자신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은 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 생활이 더 어렵다고 여기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9) 가난한 주민 사이에서도 분명히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며, ‘호강하는 삶’에 대해 말했던 주민이 동시에 가난한 자신의 삶을 자조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주민의 빈곤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의 원인을 생활수준 차이, 상대적 빈부격차로만 환원시킬 수는 없다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 절에서는 같은 세대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단기억과의 비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빈곤, 개인의 삶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빈곤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이 구분 역시 자의적일 수 있으나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현지 주민의 인식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다. “요즘에 세 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한 주민의 울분에 섞인 말은 기획자와 예술가가 간과하는 또 다른 차원의 빈곤을 보여준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마을의 사업에 있어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주민의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한다. 기획자, 예술가가 리더 그룹을 넘어 일반 주민과도 조금씩 소통을 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의 드러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마는 빈곤인 것이다. 주민 스스로도 “다들 이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라는 말을 하며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주민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주민이 처한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생각과 표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이 실제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지점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빈곤에 대한 노년층 주민의 특정한 문화가 드러난다. 주민의 거세된 욕망과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대한 의미부여는 빈곤한 삶의 조건을 간과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는 빈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처한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7. ‘또 다른 가난’의 등장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수암골이 예술마을, 더 나아가 관광지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달동네에서 연상되는 빈곤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자가 수암골의 관광 명소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적으로 드라마 촬영과 맞물리면서 이를 부추긴 형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도 빈곤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빈곤은 의도치 않게 숨겨지고 있다. 이후의 사업이 문화예술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다른 기획자도 수암골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의 조우는 달동네 주민의 실제 삶에 잠시 눈을 감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획득된 관광지, 특히 예술마을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은 수암골 주민 사이에서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예술가는 수암골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하였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 주민의 설명이다. 수암골예술촌 소속의 예술가는 형편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암골 활성화보다는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가가 관광지로서 수암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수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예술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수암골이 관광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벽화관람을 넘어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뜻을 가진 작가로 구성된 수암골예술촌의 활동이 미미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수암골예술촌은 예술분야별 1~2명의 작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주해서 활동하는 작가는 2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거주를 병행하는 작가는 단 1명뿐인데, 이 작가마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예술가가 입주하게 되는 수암골의 빈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금전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의 지원을 바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암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주민조차도 개인자산이라는 이유로 낙후된 주택 수리에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활동에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물론 청주시의 관광정책과 연계시켜 이해하여 볼 수는 있다.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수암골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고, 예술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비를 투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예술가가 스스로를 시종일관 “경제력 없는 예술가”,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가”라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수암골에는 ‘새로운 형태의 빈민’이 추가된다. 이렇게 출현한 새로운 빈민으로서 예술가는 수암골 주민의 생활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이들은 기획자와 마찬가지로 수암골이 지닌 골목길의 가치, 도심 속 시골 마을과 같은 분위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한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회를 비판하고, 오로지 먹고사는 데 급급한 오늘날의 삶을 각박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수암골 주민에게는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주민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예술가 사이에서 빈곤은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는 듯 보인다.

예술가가 청주시의 지원을 바라면서 강조하는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은 주민의 빈곤을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수암골에 관심을 가진다

는 점, 주민을 위한 활동보다는 청주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달동네 수암골의 빈곤문제를 예술 활동 지원의 문제로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 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보다는 관광지로써 수암골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예술은 관광 활성화 없이는 수암골에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예술가’의 등장은 수암골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만 증가시켰을 뿐이다. 추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며 본질을 흐리는 예술가가 주민은 달가울 수 없다. “내 집은 다 무너져가는데 무슨”이라며 쓴 소리를 했던 주민은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예술가’가 가난한 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도 의아하고, 생계가 중요해진 각박한 시대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며 청주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상황도 모순적이다.

예술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주민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 리더 그룹의 노력 때문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통해 수암골에 대한 청주시의 관심을 유도하고 노후한 주택 수리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획자, 예술가의 의도에 부합한 듯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 주민은 마을에 돌아오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사업에 마을 리더 집단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사업이 진행된 수년간 마을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불신의 배경이 되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주민은 “드러난 것은 변했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변한 게 없다”고 비판한다. 벽화를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 일색일 뿐, 정작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행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거주공간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했

던 주민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청주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만 무성하고” 해준 것도 없어 “주민한테 혜택이 없다”는 평가는 주민참여의 가치를 내세우며 주민을 위한 수암골 활성화에 앞장섰던 기획자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주민이 문화예술사업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수암골 문화예술사업의 양면성

이 연구는 수암골에서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기획자, 예술가, 주민 사이에서 빈곤이 재현되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기획자와 예술가는 주민의 빈곤한 삶의 물리적 흔적인 골목길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빈곤을 낭만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낭만화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행위자로 지속적으로 호명한다.

동시에 기획자와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은 수암골 주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고령의 주민이 빈곤에 대해 만들어가는 독특한 문화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반면 수암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의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가난한 예술가’는 수암골 주민의 빈곤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이 연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도치 않게 은폐되는 빈곤의 인식 속에서 문화예술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도시빈곤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 고찰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 수암골에서 문화예술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정리해보는 것은 이 연구의 마무리에 적합하다.

수암골을 둘러싼 기획자, 예술가와 주민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이 야기한 긍정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사업이 시행된 이후 이전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정주민이 아니라 관광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누군가를 마을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암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경제적인 혜택은 없지만, 이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은 일부 충족되는 듯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과거 부끄럽게 여겼던 수암골에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낙후지역에서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재탄생한 수암골의 달라진 위상은 주민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이콥스(2012: 373-377)는 슬럼의 탈슬럼화의 요인으로 인구 유출의 방지,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 주민 사이의 다양성 증대를 꼽았다. 이곳에서 실행된 문화예술사업은 이런 요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이곳에서 생을 정리하자는 마음도 그만큼 크다. 따라서 수암골에 대한 애착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서 탈인” 사람들이 모

여 산다는 점에서 계층적으로도 다양하게 인구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탈슬럼화의 요인인 인구 유출의 방지, 주민 사이의 다양성 증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이 두 가지 요인이 아주 미미하게라도 보완되고 있는 경향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문화예술사업이 주민의 욕구를 다르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기획자, 예술가가 골목길이나 달동네의 외관, 농촌 마을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고 빈곤에 대한 오인 하에서 빈곤 문제를 의도치 않게 은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리더 집단은 수암골이라는 이름도 기획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후에야 주민이 알게 되었고,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청주시나 기획자의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럭저럭 간신히 먹고 살고, 여생에 대한 큰 희망이나 어떤 욕구가 없어 “돈을 벌어야 하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예품 만드는 사람들만 저기해줄[이득 보게 해줄] 일 있어.”라는 마을 리더 집단의 말도 지역 활성화에 있어 예술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한 주민 역시 “이 찌그러진 집에 판박이로 사뭇 살아야 하는가.”라고 한탄하며, “벽화고 나발이고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와는 달리 예술가가 그리는 수암골에서의 활동은 여전히 관광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 역시 달동네 빈곤을 둘러싸고 재현되는 낭만적 요소와 주민의 삶이라는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철거와 재개발의 악몽에서 벗어난 달동네가 보존형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박제화, 상품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선희

2011 “텔레비전 드라마의 달동네 표상,” 『대중서사연구』 25: 7-40.

김낙준 · 김태영

2002 “청주 수동지구의 주생활환경실태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1): 47-50.

김미숙

2014 “한류문화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청주 수동 수암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5(3): 25-44.

김유미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부산 감천문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중

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77: 139-168.

김효진

2009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삶과 도시빈민공간으로서의 기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로웬델, 데이비드

2006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 한명숙 역, 고양: 개마고원.

송인창

1988 “불량주택지구 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시 수동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효진

2011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만들기: 통용 동피랑 마을의 관

광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수암골지역사회협의회

2011 『수암골 지역주민조사 발표 및 토론회』(미간행).

2012 『수암골 발전계획』(미간행).

승효상

1999 『빈자의 미학』, 서울: 미건사.

2012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서울: 컬처그라피.

신명호

2004 “한국 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당대비평』 20: 203-215.

2013 『빈곤을 보는 눈』, 고양: 개마고원.

신정훈

2014 “1990년대 전반기 한국 건축과 실내디자인, 그리고 ‘달동네,’”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172-195.

신지, 아마시타

1997 『관광인류학의 이해』, 황달기 역, 서울: 일신사.

심승희

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윤일성

2006 “도시빈곤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최민식과 김기찬의 사진 연구,” 『경제와사회』 72: 173-205.

이만형 · 임선영

1997 “도시재개발에 관한 협상론적 관점,” 『협상연구』 30(1): 123-162.

이무용

1999 “도시경관의 상품화와 문화정치,” 『도시와 빈곤』 24: 54-64.

이소정

2006 “관자촌에서 쪽방까지: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167-208.

이유림

2015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벽화마

을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201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도시 어메니티 창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석재

2006 『서울, 골목길 풍경』, 서울: 북하우스.

임선영

1997 “청주 수동 달동네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청과 건설업체의 협상: 경관보존과 도시성장의 사이에서,” 『지방자치』 105: 74-78.

장정아

2013 “빈민가에서 문화유산의 거리로-홍콩 삼쉬포 지역을 통해서 본 도시권,” 『동북아문화연구』 36: 57-75.

정아름

2008 “문화도시 전략으로서의 장소만들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연우

2010 “무허가 주거지의 성격과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송파구 개미 마을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43(3): 125-160.

정채성

1989 “난지도 주민의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21(1): 367-399.

정하나

2014 “벽화마을 사업이 거주민의 지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이콥스, 제인

2012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조문영

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한

- 2010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20(3): 1-23.

조옥라

- 1990 “여성인류학적 시각에서 본 도시빈민 지역운동: 서울 사당 2동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2(1): 111-140.
2015 “백사마을의 공동체문화: 도시빈민의 골목문화,” 『비교문화연구』 21(1): 51-85.

조윤미

- 2011 “국내 벽화 만들기의 성공요건 분석,”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

-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또한이의문화.

조은 · 조옥라

-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지훈

- 1998 “상대적 빈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와 빈곤』 35: 53-65.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1 『수암골 형성과정과 생활상 조사 보고서』(미간행).

충북발전연구원

- 2010 “마음으로 찾아가는 세상풍경 수암골,” 『앞, 뒤 바라보다』 4: 39-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2 『공공미술 시범사업 추진전략 및 평가방안 연구』.

Burgold, Julia, Fabian Frenzel, and Rolfes Manfred

- 2013 “Observation on Slums and Their Touristification,”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44(2): 99-104.

Burgold, Julia and Manfred Rolfes

- 2013 “Observing Moral Communication in Slum and Township

Tourism in Cape Town and Mumbai,”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44(2): 161-174.

Durr, Eveline

2012 “Urban Poverty, Spatial Representation and Mobility: Touring a Slum in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4): 706-724.

Durr, Eveline and Rivke Jaffe

2012 “Theorizing Slum Tourism: Performing, Negotiating and Transforming Inequality,” *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93: 113-123.

Frenzel, Fabian

2013 “Slum Tourism in the Context of the Tourism and Poverty (Relief) Debate,” *Journal of the Geographical Society of Berlin* 144(2): 117-128.

Jones, Gareth A. and Romola Sanyal

2015 “Spectacle and Suffering: The Mumbai Slum as a Worlded Space,” *Geoforum*, online, pp. 1-9.

Rapp, Rayna

1987 “Urban Kinship in Contemporary America: Families, Classes, and Ideology”, *Cities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19-242.

Rolfes, Manfred

2010 “Poverty Tourism: Theoretical Reflections and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to an Extraordinary Form of Tourism,” *GeoJournal* 75: 421-442.

〈자료〉

사업계획서

2010 <수암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의회 구성 사업계획서>(미간행).

통계자료

2014 <청주시 중앙동주민센터 인구통계자료>(2014. 10. 31. 기준).

〈신문기사〉

동아일보

2014 “영국의 노팅힐과 청주의 수암골”(2014. 9. 30.)

중부매일

2013 “연계성 없는 6·25 교육....누굴 위한 체험인가”(2013. 8. 6.)

충북일보

2014 “청주 수암골의 서글픈 두 얼굴”(2014. 7. 28.)

KBS뉴스

2015 “[희망창조 코리아] 노인 빈곤율 ‘OECD 1위’...해법은?”(2015. 1. 16.)

〈Key concepts〉: *daldongnae*, urban impoverished area, representation of poverty, culture and art projects, Suamgol

Between Fairy Tale and Reality:

Poverty of *Daldongnae* Represented in Culture and Art Projects

Kim, Joo Yo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presentation of poverty from a culture and art project in Suamgol, an urban impoverished area called *Daldongnae* in Cheongju, Korea. This study observes the project planners, artists, and local residents, who are key agents to the project, and examines how they represent povert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s and experiences. These diverse expressions of poverty are found in alleys, from different understandings toward rural-like village communities, and misconceptions or selective perceptions of poverty.

As shown in this study, this process unintentionally misrepresents poverty. Whereas the planners, artists, and local residents present poverty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poverty in reality disappears. The residents of this *Daldongnae* went through forced demolitions and redevelopment, and finally survived thei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nightmares. Now, however, a new paradigm called preservation development objectifies and commercializes their lives and poverty in reality in a whole different way.